

文天祥 「正氣歌」의 人物典故 研究*

황영희** · 권호중***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정기가」의 주제의식
 - 1) 正氣禮讚
 - 2) 正氣實證
 - 3) 正氣繼承
3. 「정기가」의 전고활용
 - 1) 전고내용
 - 2) 수사기교
4.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남송 문천상이 살던 시기는 바로 몽고가 남쪽을 침범하던 시기였다. 양번지전(襄樊之戰)에서 송군(宋軍)을 대파한 원군(元軍)은 곧 바로 남송의 수도 임안(臨安, 지금의 항주)으로 압박해 들어온다. 덕우(德祐) 2년(1276년) 송의 조정은 강화를 요구하나 이뤄지지 않는다. 이에 5세 된 어린 황제 공제(恭帝) 조현(趙昰)은 투항한다. 송 도종(度宗)의 양숙비(楊淑妃)는 국구(國舅) 양량절(楊亮節)의 보호 아래 자신의 두 아이, 곧 송조의 2왕인 익왕(益王) 조하(趙昀)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세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학부 중국어전공 교수(주저자)

***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교신저자)

와 광왕(廣王) 조병(趙昺)을 데리고 도망쳐서 금화(金華)에서 육수부(陸秀夫), 장세걸(張世傑), 진의중(陳宜中) 등과 회합한다. 뒤이어 익왕 조하를 천하병마 도원수, 조병은 부원수로 봉한다. 원군의 사령관 백안(伯顔)은 계속하여 두 왕을 추적하니, 이에 두 왕은 온주(溫州)를 거쳐서 복안(福安, 지금의 福州)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막 7세가 된 조하가 황제로 등극하니 이가 바로 송의 단종(端宗)이다. 그는 연호를 경염(景炎)이라 고치고, 생모를 받드니, 도종의 양숙비는 양태후가 된다. 동생 조병은 위왕(衛王)으로, 장세걸은 대장으로, 육수부는 추밀원사로, 진의중은 승상으로, 문천상은 소보(少保) 신국공(信國公)으로 봉하여 항전작업을 조직하게 하였다.

조하가 황제가 된 이후 원조는 송을 공격하는 발걸음을 더욱 빨리하였다. 단종 경염 2년(1277년) 복안이 무너지고 단종의 남송 조정은 천주(泉州)로 피하였다. 장세걸이 배를 빌리고자 하였지만, 뜻밖에도 천주의 시박사(市舶司)의 아랍계 상인 포수경(蒲壽庚)의 거절을 당하였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던 포수경은 일찌감치 원조에 투항하였다. 장세걸은 선적을 강탈하여 광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단종은 뇌주(雷州)로 피하려 하였지만, 뜻밖에도 태풍을 만나서 황제의 배가 전복되고 단종도 하마터면 익사할 뻔하였다. 좌승상 진의중이 단종을 데리고 점성(占城, 지금의 베트남)으로 가길 건의하고, 자신이 앞서 점성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 후 단종은 물에 빠졌던 일로 인하여서 병을 얻은 뒤로 얼마 되지 않아 붕어하였다.

이어서 7세의 위왕 조병이 등극하여 연호를 상흥(祥興)이라 하고 육수부와 장세걸의 호위를 받아 애산(崖山)을 거점으로 계속 항원전쟁을 준비하였다. 얼마 뒤 광둥과 강서 2성에 지역에서 항원전투를 하던 문천상이 망명조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장홍범(張弘範)의 부장 왕유의(王惟義)에 의하여 해풍현(海豐縣)의 오펜령(五坡嶺)에서 생포되면서 항원세력은 전멸하게 되었다.¹⁾

상흥 2년(1279년) 원은 한인 투항 장수인 장홍범을 보내어 애산에 있던 송

1) <https://zhidao.baidu.com/question/212762749.html>. 「南宋具體怎麼滅亡的?」(2018년, 8월 8일).

의 망명조정을 공격하게 하였다. 얼마 뒤에 서하(西夏) 후예로 원의 명장인 이항(李恒) 또한 지원병을 거느리고 장흥범 군대를 도왔다. 이때 송군의 군사력은 20만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그중 십 수만은 문관, 궁녀, 태감 및 비전 투요원이었고, 각종 병선이라고 해 보아야 2천 척 정도이었다. 장흥범과 이항은 10만의 병력(일설에는 30만)에 전선은 수백 척이었다. 장세걸은 병사들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지의 궁전과 가옥 등 거점을 모두 불태우고 천여 척의 송나라 군선을 '연환선'의 방법으로 1자 형태로 바다 입구에 밧줄로 묶고, 황제의 '용주(龍舟)'를 군대 중간에 두었다. 송군의 배는 온통 진흙인 데다가 또 모든 배마다 긴 횡목을 가로로 걸쳐서 원군의 화공을 잘 막아내었다. 장세걸은 소류의(蘇劉義)와 방흥일(方興日)을 이끌고 원의 군대와 크게 싸웠지만 결국 패하고 만다. 43세의 육수부가 8세의 어린 황제를 업고서 바다로 투신하자, 그를 수행한 10여만의 군사와 백성들도 뒤를 따라서 바다로 뛰어 드니, 후에 바다 위로 10여 만의 시신이 떠올랐다 한다. 장세걸은 양태후의 이름을 내걸고 다시 송조의 후예를 찾아서 후일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황제 조병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는 양태후 역시 바다로 뛰어 들었다. 적의 포위를 뚫은 장세걸은 해릉도(海陵島) 평장산(平章山) 아래에서 그 소식을 듣고 마침내 송조의 중흥을 포기하고 폭풍우 속에서 익사하게 된다. 1279년 3월 19일 야산의 전투가 끝이 나면서 송의 운명은 사실상 끝이 났다.

2. 「정기가」의 주제의식

문천상(文天祥)은 상흥 원년(1278년) 10월 반역자에 의하여 원군(元軍)에 포로가 된다. 문천상은 압송되는 가운데 배 위에서 송조의 멸망을 지켜보며 “2월 6일 해상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랏일을 구하지도 못하니, 신 문천상은 북쪽에 앉아서 배안에서 남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시를 짓는다.(二月六日, 海上大戰, 國事不濟, 臣文天祥坐北, 舟中向南, 慟哭爲詩.)”는 시²⁾를 짓

2) 『文天祥全集』 卷14.

는다. 장홍범은 문천상에게 이제 ‘송이 망하였고, 당신의 충효도 끝났다.’고 하면서 원에 귀순하도록 다시 한 번 더 권한다. 이에 문천상은 “나라가 망하는데도 구하지 못했으니 죽어도 아직 남은 죄가 있다. 내 어찌 생을 탐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태도를 바꾸겠는가?”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1279년 2월 6일 장홍범의 공격으로 남송은 마침내 멸망하고 문천상은 10월에 원의 수도 연(燕)에 도착하였다. 이때 남송의 장원(壯元) 재상의 신분으로 원에 투항하였던 유몽염(留夢炎)이 찾아와 투항을 권했으나, 문천상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거절하였다. 이어 원에 항복하였던 공제 조현이 찾아오자, 문천상은 “한 번 보고 북면하여 절을 올린 뒤 그에게 어가를 돌리시길 청하였다(一見, 北而拜號, 乞回聖駕)”고 한다. 그 뒤에도 후빌라이의 측근 아허마(阿合馬)와 재상 보뤄(博羅) 등의 꺾박과 회유가 있었지만 모두 거절하였다.

1280년 3월 문천상은 3년 전 공갱(空坑) 전투에서 원군에 잡혀갔던 딸 유랑(柳娘)의 편지를 받고서, 모녀 3인이 모두 대도(大都)에 있으며, 죄수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은 그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得兒女消息」 시³⁾에서 딸에게 “애야, 이제 살 계책을 묻지 마라. 다하지 못한 인연을 다시 다음 생에 심도록 하자(癡兒莫問今生計, 還種來生未了因)”고 답한다. 그는 부인과 딸과 만나지 않는다. ‘금생은 다했으니, 단지 다음 생을 기약할 뿐이다.’고 말하였다. 5월에 문천상의 동생 문벽(文璧)이 혜주(惠州)에서 왔다. 혜주가 함락될 때 그는 원군에 항복하였다. 문천상은 문벽과 함께 공부했으므로 두 사람간의 정의는 아주 남달랐다. 그러나 이번에 문천상은 문벽이 자신의 뜻을 살피려고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심 반갑지만은 않았다. “형제간에 한 사람은 죄수이고, 한 사람은 말을 타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는 같지만, 하늘은 같이 하지 않은 것(兄弟一囚一乘馬, 同父同母不同天)”⁴⁾이다. 형제가 만났지만 속마음을 말하기가 어려웠다. 동생 문벽이 떠나면서 형 문천상에게 4백관의

3) 上同.

4) 『文天祥全集』 卷14, 「聞季萬至」.

돈을 주었지만, 문천상은 “이것은 역물이라 받을 수 없다(此逆物, 我不受)”는 말로써 가혹하게 거절하였다. 이에 동생은 몸 둘 바를 모르게 되었다 한다.

원의 통치자는 그에 대하여 강온정책을 병행하여서 위압으로 핍박하기도 하고 이익으로 유혹하면서 높은 관직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문천상은 죽음을 맹세하고 굴복하지 않았고, 몸으로써 보국하길 결심하고 터럭만큼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3년이나 감옥에 구금되었다. 지원(至元) 19년 12월 9일(1283년 1월 9일) 강개한 마음으로 죽음에 임했다. 이 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죽기 1년 전 옥중에서 쓴 작품이다.

「정기가」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1) 天地有正氣”에서 “(10) ——垂丹青”까지가 첫째 단락이고, “(11) 在齊太史簡”에서 “(34) 道義爲之根”까지가 둘째 단락이며, “(35) 嗟余遘陽九”에서 “(60) 古道照顏色”까지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다. 아래에서는 이 각각의 단락을 ‘正氣禮讚’, ‘正氣實證’, ‘正氣繼承’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正氣禮讚

시인은 시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정기가」 서문(並序)에서 시를 짓게 된 배경과 함께 천지간 정기의 위력에 대하여 이미 열정적으로 예찬하고 있다.

나는 북국의 도성에 구금되어 토방감옥 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방의 폭은 8자가 되고, 깊이는 4심 쯤 된다. 홀 문은 낮고 작으며, 흰 창문은 작고 좁으며, 더럽고 폭 꺼진데다가 구석지고 캄캄하다. 이런 여름날에는 온갖 기운이 모두 모여든다, 빗물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침상과 안석까지 흘러넘친다. 이때는 (감옥 안이 온통) 물 기운이다; 감옥 벽의 진흙은 반 썸 축축해졌고, 습기가 찌는 듯하니 이때는 감옥 안이 온통 흙 기운이다; 갑자기 날이 개었다가, 갑자기 더워지고, 바람이 사방으로 막혀 있으니 이때는 온통 태양의 기운이다; 처마 밑 그늘도 땀나무로 땀을 짓는 듯하여 열기를 더욱 돋우니, 이때는 온통 불기운이다; 창고에는 쌓은 양식이 썩어 나쁜 기운이 코를 압박하니, 이때는 온통 쌀 기운이다. 어깨를 나란

히 하여 뒤섞여 있다 보니 땀과 때로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니, 이때는 온통 사람 냄새이다; 때론 측간에서, 때론 훼손된 시체에서, 때론 썩은 귀에서 악취가 뒤섞여 나오니, 이때는 온통 더러운 기운이다. 겹겹이 여러 가지 기운이 쌓이니 당연히 요기가 스며들어 피부병에 걸리지 않은 이가 적다. 어느새 짧은 시간이 흘러 이제 2년이 되었는데, 다행히 나는 병도 없으니, 이는 아마도 내가 기른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리라. 그러나 또 기른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고 하셨다. 저 기운은 일곱 가지이고, 나의 기운은 한 가지이지만, 이 한 가지로 저 일곱 가지를 대적함에 내가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하물며 호연지기가 천지의 올바른 기운(正氣)임에랴. 이에 「정기가」 한 수를 짓는다(予囚北庭, 坐一土室. 室廣八尺, 深可四尋. 單扉低小, 白間短窄, 汗下而幽暗. 當此夏日, 諸氣萃然: 雨潦四集, 浮動床几則爲水氣; 塗泥半朝, 蒸溷歷瀾, 時則爲土氣; 乍晴暴熱, 風道四塞, 時則爲日氣; 簷陰薪爨, 助長炎虐, 時則爲火氣; 倉腐寄頓, 陳陳逼人, 時則爲米氣; 駢肩雜沓, 腥臊汗垢, 時則爲人氣; 或圍溷毀屍, 或腐鼠, 惡氣雜出, 時則爲穢氣. 疊是數氣, 當侵疹, 鮮不爲厲. 而予以孱弱, 俯仰其間, 於茲二年矣, 幸而無恙, 是殆有養致然. 然爾, 亦安知所養何哉? 孟子曰: “吾善養吾浩然之氣.” 彼氣有七, 吾氣有一以敵七, 吾何患焉! 況浩然者, 乃天地之正氣也, 作正氣歌一首.)

서문에서 시인은 먼저 감옥 안의 ‘七氣’를 묘사하여 감옥 환경이 지극히 열악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몸이 본래 신체적으로 나약한데도, ‘七氣’의 협공 아래서 끝까지 아무 탈이 없는 것은 그것은 바로 가슴 속의 호연정기(浩然正氣)를 의지하였기 때문이고, 이러한 ‘正氣’가 가슴에 있으면 모든 ‘사악한 기운(邪氣)’과 ‘탁한 기운(濁氣)’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⁵⁾

시인은 서문에서 산문으로 묘사한 정기의 위력을 시의 본문 첫 머리에서는 운문으로 정기의 위력에 대해 다시 예찬하고 있다.

5) ‘養氣’之說은 孟子에게서 비롯되었다. ‘氣’는 원래 중국 고대철학의 한 영역이지만, 송대에 이르러 ‘氣’는 ‘理’와 함께 송대 이기론(理氣論)의 핵심적인 개념이 되어 성리학으로 발전한다. 남송 주희(朱熹)에 이르면 성리학은 신유학으로 완성된다. 문천상이 이 시에서 말한 ‘정기(正氣)’는 이러한 철학적 사상과도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1) 天地有正氣, 천지에 바른 기운이 있어서
- (2) 雜然賦流形. 뒤섞여 온갖 형체를 만들었네.
- (3) 下則爲河嶽. 아래로는 바로 강과 산이 되고
- (4) 上則爲日星. 위로는 바로 태양과 별로 되었다.
- (5) 於人曰浩然, 사람에게는 호연지기라 하는데
- (6) 沛乎塞蒼冥. 가득히 창공을 채우고 있다.
- (7) 皇路當清夷. 나라의 명운이 맑고 평안할 때는
- (8) 含和吐明庭. 화평함을 머금고 밝은 조정에 토해낸다.
- (9) 時窮節乃見, 시운이 곤궁할 때에는 충절이 이내 드러나니
- (10) 一一垂丹青. 한 사람 한사람이 공신의 도록에 전해진다.

시인은 “正氣”가 천지와 같이 생기고 우주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천지의 정기는 강과 산뿐만 아니라 태양과 별도 만들어 내었다고 예찬하고 있다. 정기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숭고한 아름다움(崇高美)이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였다.

다섯째 구에서는 시인의 필체가 일변하여 정기에 대한 묘사가 갑자기 사람의 몸으로 이르고 있다. 시인은 자신이 말한 “正氣”란 바로 맹자가 말한 “浩然之氣”와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浩然正氣”는 푸른 하늘에 가득 차 있다고 하니 정기의 힘을 가히 알 수 있다, “皇路” 2구는 淸平之時에는 “正氣”를 타고난 사람들이 부드럽고 화락한 성품으로 조정의 맑은 정치를 위하여 진력함을 묘사하고 있다. 이 두 구에 이어서 마지막 (9), (10) 두 구에서 시인의 붓끝은 또 다시 전환하여 위난의 시기에는 정기를 타고난 사람이 바로 늠름한 기상을 드러내어 정의를 위하여서 어려움과 재앙을 피하지 않고, 청사에 길이 남는 업적을 남긴다고 쓰고 있다.

요컨대 시인은 이 시의 첫 단락에서는 정기의 힘을 예찬하면서, 정기란 천지간에 위로는 태양과 별을, 아래로는 강과 산을 만들어 내는 큰 힘을 지녔고, 인간세상에서는 태평한 시절에는 조정을 화락하게 하고 시운이 곤궁할 때는 충절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다. “시운이 곤궁할 때에 충절이 드러난다(時窮節乃見)”는 말은 이 시 전체의 주제로 관통하고 있다.

2) 正氣實證

- (11) 在齊太史簡. 제(齊)에서는 태사의 죽간으로 드러났고
- (12) 在晉董狐筆. 진(晉)에서는 동호의 붓으로 드러났다.
- (13) 在秦張良椎. 진(秦)에서는 장량의 철추로 드러났고
- (14) 在漢蘇武節. 한(漢)에서는 소무의 부절로 드러났다.
- (15) 爲嚴將軍頭. 장군 엄안의 머리가 되기도 하고
- (16) 爲嵇侍中血. 시중 혜소의 피가 되기도 하였다.
- (17) 爲張睢陽齒. 장휴양의 치아가 되기도 했고
- (18) 爲顏常山舌. 안상산의 혀가 되기도 했다.
- (19) 或爲遼東帽. 혹은 요동의 모자가 되었는데
- (20) 清操厲冰雪. 그 맑은 지조가 빙설보다 매서웠고,
- (21) 或爲出師表. 혹은 출사표가 되기도 하였으니
- (22) 鬼神泣壯烈. 귀신도 그 장렬함에 흐느꼈다.
- (23) 或爲渡江楫. 혹은 장강을 건너는 노가 되어
- (24) 慷慨吞胡羯. 강개함이 오랑캐를 삼킬듯했고
- (25) 或爲擊賊笏. 혹은 도적을 치는 홀(笏)이 되어서
- (26) 逆豎頭破裂. 반역자는 머리가 깨지기도 하였다.
- (27) 是氣所磅礴. 이는 기운이 무너지듯 넘쳐난 바로서
- (28) 凜烈萬古存. 늠름하게 만고에 존재하네.
- (29) 當其貫日月. 이 정기가 해와 달을 관통할 제
- (30) 生死安足論. 삶과 죽음을 어찌 죽히 논하리오.
- (31) 地維賴以立. 땅을 묶는 밧줄은 이를 의지해 서고
- (32) 天柱賴以尊. 하늘을 받치는 기둥은 이를 의지해 드높다.
- (33) 三綱實繫命. 삼강은 실로 정기에 생명을 묶고 있고
- (34) 道義爲之根. 도의는 정기를 뿌리로 삼는다.

둘째 단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11) 在齊太史簡”에서 “(26) 逆豎頭破裂”까지는 역사인물 12명의 충절을 전고로 활용한 것이고, “(27) 是氣所磅礴”에서 “(34) 道義爲之根”까지는 이들의 행동이 정기의 발현임을 총괄한 뒤 그 정기가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을 유지하는 근본이 됨을 말하고 있다.

시인은 먼저 역사서에 나오는 12명의 충신(忠臣)과 의사(義士)의 장렬한 행

등을 예로 들면서 “浩然正氣”의 체현을 실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어떤 이는 군주를 살해하고 권력을 잡은 간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붓으로 사실 그대로 기록한 사관이고, 어떤 이는 망한 나라의 복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섰던 사람이며, 또 어떤 이는 적국의 회유에도 끝까지 투항하지 않은 사신이다. 어떤 이는 강한 적을 맞이하여 차라리 죽을지언정 끝까지 굴복을 하지 않는 의사(義士)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싸움에 패하여 적의 포로가 된 뒤에도 끝내 적에게 굴복하지 않은 장수이기도 하니,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忠烈”이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忠”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따져볼 부분도 없진 않다. 이를테면 혜소의 절개는 그 특수성 때문에 역대로 문인 소객들의 포폄이 일치하지 않았다. 곽상(郭象)이나 치감(郗鑑) 같은 사람은 동시대이거나 또는 그와 시대적으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인데 모두가 혜소의 행동에 대하여서 찬동하지 않았다. 곽상은 혜소가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황실의 내홍으로 위협에 빠진 혼미한 군주에게 충성한 것은 명예와 지위를 탐한 것이라 여겼다. 명대의 저명한 사상가 고염무(顧炎武)는 혜소와 산도(山濤)를 같이 꾸짖었고, 근대에도 적지 않은 학자들이 고염무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⁶⁾ 동한 말엽의 관녕 같은 이는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난리를 피해 요동으로 가서 은거하며 자기 한 몸을 선하게 지키기만 한 인물이었으니 “忠節”과는 직접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그런데도 문천상이 이들을 모두 “忠”의 실례로 인용한 것은 혼란한 시기에 왕조의 명운을 위하여 목숨을 내걸거나, 또는 난신적자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그를 피하여 은거를 택한 그들의 절개를 높이 샀기 때문이다. 이들 전고에 묘사된 이들의 행적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시에서 인용된 대부분 인물들의 “충렬”은 정말 매우 감동적이다.

“(27) 是氣所磅礴”에서 “(34) 道義爲之根”까지는 앞서 언급한 충용(忠勇)과 장렬(壯烈)을 “正氣”로 개괄하였다. “정기”가 모이면 생사는 따질 필요가 없었다. “地維”와 “天柱”는 실제적으로는 정통왕조의 사직이 보존될 수 있는 정

6) <https://baike.baidu.com> 「稽紹」. 2019년, 9월 29일.

신적 지주를 말한다. “三綱”구는 윤리도덕의 내용이고, “도의” 역시 그러하다. 요컨데, “정기”는 그 자체로서 윤리도덕과 가치체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시인은 이 단락 후반 여덟 구를 통하여서 정기는 애국지사를 격려하는 정신적 힘이 되고 청사에 남는 많은 불후의 업적을 창조해 내었다고 말하고 있다.

3) 正氣繼承

- (35) 嗟予遘陽九, 아아! 내가 국난을 만나고서도,
 (36) 隸也實不力. 미천한 몸이 실로 힘을 쓰지 못했네.
 (37) 楚囚纓其冠, 초의 죄수처럼 조정의 관복을 입은 채,
 (38) 傳車送窮北. 역수레에 실려 궁벽한 북방까지 보내졌네.
 (39) 鼎鑊甘如飴, 가마솥에 삶기는 것도 옛처럼 달게 여기련만,
 (40) 求之不可得. 그것을 구하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네.
 (41) 陰房闔鬼火, 음습한 감방은 귀신불 가득하고
 (42) 春院闔天黑. 봄날의 정원은 어두운 하늘을 가두었구나
 (43) 牛驥同一皁, 소와 천리마가 마구간을 같이 하고
 (44) 雞棲鳳凰食. 닭장에서 봉황이 거처하네.
 (45) 一朝濛霧露, 하루아침에 안개와 서리를 덮어쓰면
 (46) 分作溝中瘠. 제각기 도랑 속 시체로 변하네.
 (47) 如此再寒暑, 이렇게 두 번이나 추위와 더위를 보냈거늘
 (48) 百沴自辟易. 모든 악기들이 스스로 피해갔네.
 (49) 嗟哉沮洳場, 아아! 이 음습한 곳이
 (50) 爲我安樂園. 나의 안식처가 되었네.
 (51) 豈有他繆巧, 어찌 남다른 술책 있어서
 (52) 陰陽不能賊. 추위와 더위가 날 해칠 수 없었겠는가?
 (53) 顧此耿耿在, 다만 이 정기가 밝고 밝게 있어서인데
 (54) 仰視浮雲白. 고개 들어보니 (부귀는) 뜬 구름처럼 헛되도다.
 (55) 悠悠我心悲, 아득하게 내 마음이 슬퍼지지만,
 (56) 蒼天曷有極. (나의 충심) 창천 같아 어찌 끝이 있겠는가?
 (57) 哲人日已遠, 옛 철인들 날로 멀어져도,
 (58) 典刑在夙昔. 남겨준 모범 언제나 남아 있네.
 (59) 風檐展書讀, 바람부는 처마 아래서 책 펼쳐 읽으니
 (60) 古道照顏色. 옛 성현의 도리가 얼굴을 비추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다시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35) 嗟予遘陽九”에서 “(46) 分作溝中瘠”까지인데 적국에 포로가 되어서 감옥 속에서 비인간 적임 삶을 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두 번째는 “(47) 如此再寒暑”에서 “(54) 仰視浮雲白”까지인데 이러한 비참한 삶속에서도 정기의 위력을 받아 그 음습한 곳이 오히려 안식처로 느껴진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시의 서문에서 정기의 위력을 상세히 묘사한 시인은 다시 시의 첫 머리에서 정기의 위력을 언급한 뒤에 시의 마지막 단락에서 그 위력을 또 다시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5) 悠悠我心悲”에서 “(60) 古道照顏色”까지인데 이러한 정기를 실천한 전인들의 모범을 계승할 뜻을 펼치고 있다.

전체 시의 둘째 단락에서는 정기가 역사상 충의지사에게 충렬의 사적을 부여하였음을 설명하였지만, 셋째 단락에서는 처음부터 곧바로 시인 자신을 묘사하고 있다 “(35) 遘陽九”는 자신이 악운을 만났던 것을 말하고, “(36) 隸也” 구는 국가의 위기를 되돌릴 수 없는 자신의 무력을 말하고 있다. “(37) 楚囚” 두 구는 한 편으로는 자신이 북방으로 압송되어 구금된 것을 묘사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楚囚南冠’의 전고를 빌어서 송 황실에 대한 자신의 충정과 남쪽을 향한 굳센 마음을 드러내었다. 전고의 쓰임이 매우 적합하여 서술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아주 잘 드러내었다. “(39) 鼎鑊” 2구는 죽음을 마치 집으로 돌아가듯 여기는 시인의 장렬한 뜻을 드러내었고, “(40) 陰房”는 구석진 곳 주위 환경의 어둡고 더러움을 묘사하고 있다. “(47) 如此” 이하 두 구는 자신에게 정기가 가슴에 있어서 온갖 악기를 쉽게 피할 수 있음을 묘사하였다. “(49) 嗟哉” 이하 6구는 자신의 밝은 충심과 끝없는 정기가 온갖 악기를 막는 법보(法寶)로서 어떠한 사악한 기운에도 자신이 해를 받도록 하지 않게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57) 哲人” 이하 4구는 전체시의 결어로서 이 시를 짓게 된 주지(主旨)를 제시하고 있다. 선철은 이미 떠나셨지만, 그러나 정기가 그들에게 부여한 사적은 역사책에서 영원히 빛나면서 천고의 세월에도 마멸되지 않을 것이다. 시인은 이들 충렬지사의 몸에서 정기의 향과 기를 얻었다. 고래로 충신지사의 장렬한 의거는 시인이 즐겨 학습해 온 모범이었

다. “風檐” 2구는 조용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 시 전체의 핵심은 “時窮節乃見”이다. 작자는 먼저 “天地有正氣”에서 실마리를 열고서, 이후 층층으로 효과음향을 넣어서 “時窮節乃見” 구가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이후에 다시 “哲人”의 사적을 하나하나 들어서 “時窮節乃見”을 증명하고 있다. 또 자신이 흠벽 감옥 속에 갇혀서도 굳세게 뜻을 지키며 “時窮節乃見”을 드러내고 있다. 시 전체는 편폭이 크고, 주제가 분명하고 맥락도 분명하다. 호연정기가 전편을 관통하고 있으면서 고인의 사적과 자신의 처경을 서술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듭 쌓으면서 중복하는 느낌이 없다. 먼저 고인을 묘사한 뒤에 자신을 묘사하며, 아울러 “때가 고궁하면 절기를 드러낸(時窮節乃見)” 고인이 바로 자신의 모범임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았기에 그로 하여금 애국정신을 드러나게 하였고, 민족영웅이 되게 한 것이며, 또한 이 작품이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널리 알리는 전범이 되는 작품으로 만들었다.⁷⁾

문천상의 「正氣歌」는 이렇게 남송이 완전히 망한 뒤에 그가 연경의 감옥에 있는 중에 쓴 5언 고시이다. 시의 개두(開頭)는 바로 ‘浩然正氣’가 천지공간에 존재하고 있다가 시대가 곤궁할 때에 반드시 드러날 것임을 언급하였다. 이어서 12개의 전고를 연용하고 있는데, 모두가 역사상 유명한 인물들이다. 그들이 한 일은 호연정기의 힘을 늠름하게 드러내 보여준다. 이어서 나오는 8구는 호연정기가 일월을 관통하고 천지를 세우며 삼강의 명줄이자 도의의 뿌리임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운명을 연계하여서 자신은 비록 싸움에 져서 포로가 되어 더할 나위 없이 악렬한 감옥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정기로 인하여서 각종 악기와 질병은 모두 자신을 침범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서 스스로 평안한 마음으로 선철의 전범을 계승하여서 자신의 운명을 마주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전체 시는 감정이 침울하고 기세가 산하처럼 장엄하며, 흥금을 그대로 드러내고 전혀 수식을 가한 바가 없으니 작자의 숭고한 민족기질과 강렬한 애국주의 정신을 충분히 구현해 내었다.

7) 霍松林, 『宋詩鑑賞學隅』, 283-284쪽.

3. 「정기가」의 전고활용

1) 전고내용

(1) 在齊太史簡 : 제(齊)에서는 태사의 죽간으로 드러났고

기원전 548년 춘추시기에 제 나라 대부 최저(崔杼)가 제의 군주 장공(莊公)이 자신의 부인과 사통한 일로 인하여서 그를 살해하였다. 그리고 장공의 이복동생인 저구(杵臼)를 군주로 세웠는데 이가 바로 경공(景公)이다. 최저는 스스로 상국이 되어 국정을 전횡하였다. 그런데 제의 태사 백(伯)이 사책(史冊)에 “최저가 그 군주를 시해하였다(崔杼弑其君)”고 썼다. “병들어 죽었다.”고 쓰길 요구한 최저는 화가 나서 태사 백을 죽여 버렸다. 태사의 동생 중(仲)과 숙(叔)도 사책에 그렇게 썼는데, 모두 살해당했다. 태사는 넷째 계(季)도 불렀지만 넷째 역시 여전히 그렇게 쓰니, 최저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그가 그렇게 쓰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제의 다른 태사 남사씨(南史氏)가 태사들이 모두 죽었다는 말을 듣고, 죽간을 들고 갔는데, 태사 계가 이미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보고서 비로소 돌아갔다. 제의 태사 형제들은 강폭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 사람이 넘어지면 뒷사람이 이어서 사실대로 기록하는 의로운 행동이 영원토록 사서에 남게 되어 후세에 전승되고 있다.⁸⁾

(2) 在晉董狐筆 : 진(晉)에서는 동호의 붓으로 드러났다.

동호(董狐)는 춘추시기 진(晉)의 사관이였다. 기원전 607년 진 영공(靈公)은 간신 도안고(屠岸賈)의 선동으로 집정대신 조순(趙盾)을 암살하려 하였지만, 조순은 목숨을 건 호위병 제미명(齊彌明)의 보호로 도망칠 수 있었다. 조

8) 『左傳』, 「襄公 25年」.

순과 그의 아들 조삭(趙朔)은 압박을 받고 국외로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길에 공교롭게도 사촌 동생 조천을 만났다. 조천(趙穿)이 전후 사정을 알고 난 뒤에 진 영공을 살해해버렸다. 그러나 사관 동호는 도리어 사서에 “조순이 군주를 시해했다(趙盾弑君)”고 기록하였다. 조순은 자신이 군주를 시해하지도 않았는데도 사관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억울하여 그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동호는 다시 집정한 정경(正卿) 재상 조순을 똑 바라보면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말했다: “당신은 도망을 갔지만, 국경을 넘지 않았다. 그것은 국내에 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응당 알고 있을 터인데도 때에 맞춰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조천이 군주를 시해한 이후 당신이 다시 집정하였으면서도, 조천이 군주를 시해한 죄를 추궁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당신이 그의 시해에 동의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조순은 이 말을 듣고서도 아무 말이 없이 돌아갔다. 공자는 이와 같은 필법을 ‘좋은 사관(良史)’의 필법이라고 칭찬하였고 그를 ‘良史’라고 평한 바가 있다.⁹⁾ 이후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면서 거리낌이 없는 것을 ‘동호필(董狐筆)’이라 한다.

(3) 在秦張良椎 : 진(秦)에서는 장량의 철추로 드러났고.

장량(張良)은 조상 5대까지 모두 한(韓)의 승상을 지냈다. 한 나라가 진시황에게 멸망당한 뒤로 그는 일심으로 한 나라를 대신해 복수하기 위해 역사(力士)를 구하였다. 그는 역사(力士) 창해군(滄海君)을 구하여 120근 나가는 철추로 박랑사(博浪沙, 지금의 河南省 新鄉縣 남쪽임)에서 진시황을 저격하였지만 따르는 수레만 잘못 맞추었다. 장사에 의하여 공격받은 그 수레는 뒤따르는 수레(副車)일 뿐이었다. 진시황은 이미 여러 차례 습격을 받아서 일찌감치 방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수레는 모두 네 마리 말이 몰고, 수시로 수레를 바꾸어 탔으니 장량이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진 황제는 크게 노하여 천하를 대대적으로 수색하여 자객 잡기를 매우 긴급하게 하였다. 장량은 이후

9) 『左傳』, 「宣公 2年」.

성과 이름을 바꾸고 하비(下邳)로 가서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진시황이 그를 잡기 위하여 명령을 내려 대대적으로 수색하였지만 그를 잡지는 못하였다.¹⁰⁾

(4) 在漢蘇武節 : 한(漢)에서는 소무의 부절로 드러났다.

한 무제 때 소무는 흉노로 사신 갔다가 흉노 내부의 역모 사건에 연루되었다. 흉노인들은 그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그가 투항하여 흉노의 신하가 되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에 대한 충심으로 결연히 거부하고 지금의 시베리아 바이칼호에 해당하는 북해(北海)로 유배되어 양을 키우며 지내게 되었다. 흉노에서는 숫양이 자식을 낳아야 소무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소무는 고국 한(漢) 나라에 대한 충정을 표시하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에서 가져갔던 부절을 지니고 양을 쳤다. 그렇게 양을 치며 지내길 19년 동안 그는 끝내 절개를 꺾지 않았다. 무제 후원 2년(기원전 87년) 소제가 즉위하고, 몇 년 후 흉노와 한은 화의(和議)에 이르자, 소무는 마침내 한의 조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¹¹⁾

(5) 爲嚴將軍頭 : 장군 엄안(嚴顏)의 머리가 되기도 하고

건안(建安) 17년(212년) 유장(劉璋)은 북방 조조와 한중(漢中) 장로(張魯)의 위협을 이유로 법정(法正)을 형주(荊州)로 보내어 익주(益州, 지금의 四川)로 유비(劉備)를 맞이하게 하였다. 유장의 수하 장수 엄안(嚴顏)은 이때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길 “이것은 나갈 길이 없는 깊은 산속에 혼자 앉은 채 호랑이를 풀어서 자신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듬해 유비는 유장과 대결하여 그와 결별하고, 장비, 제갈량, 조운(趙雲) 등은 형주의 병사를 이끌고 사천으로 들어가서 지원군을 증가한다. 대군이 강주(江州)에 이르자, 강주

10) 『史記』 卷55, 「留侯世家」.

11) 『漢書』 卷54, 「蘇武傳」.

를 지키던 엄안은 항복을 하지 않고 수비만 하다가, 장비에게 잡혀서 투항을 요구받았다. 엄안이 대답하길 “이곳에는 머리가 잘릴 장군만 있을 뿐, 항복하는 장군은 없다(我州但有斷頭將軍, 無降將軍.)”고 하였다. 장비는 그의 굽히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보고서 풀어주었다.¹²⁾

(6) 爲嵇侍中血 : 시중 혜소의 피가 되기도 하였다.

혜시중(嵇侍中)은 혜소(嵇紹: 253년—304년)로서, 서진(西晉)의 문학가(文學家)이고, 조위(曹魏)의 중산대부(中散大夫) 혜강(嵇康)의 아들이다. 혜강이 사마씨에게 해를 입었을 때 혜소는 10세이었다. 그는 진(晉) 혜제(惠帝) 때에 시중(侍中)을 지냈다. 진 혜제는 사마염(司馬炎)의 아들이자 사마소(司馬昭)의 손자로 역사상 머리가 아둔하였던 황제로 유명하다. 바로 이 혜제 때 황실의 내란인 8왕의 난이 있었다. 영흥(永興) 원년(304년) 혜소는 혜제를 따라서 탕음(湯陰)의 전투에 종군하였다. 이때 군대는 패하고, 화살이 비처럼 날아들자 시위병은 붕괴되어 모두 흩어졌다. 혜소만이 자신의 몸으로 혜제의 몸을 가리고 화살을 막으며 그 주위를 지켰다. 성도왕(成都王) 사마영(司馬穎)의 군사들은 혜소를 수레 앞의 끈은 나무 위로 늘렸다. 혜제가 “이 사람은 충신이니 죽이지 말라.”고 하니, 군사들이 대답하길, “황태제(皇太弟)께서는 폐하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을 뿐입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는 혜소를 죽였는데, 그가 죽을 때 그의 피가 튀어 혜제의 옷을 적셨고, 혜제는 그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표하였다. 전쟁이 끝난 이후 혜제의 좌우 사람들이 그 옷의 피를 씻으려 하니, 혜제는 “이것은 혜시중의 피이니 지우지 마라(此嵇侍中血, 勿去.)”고 말하였다. 이후 ‘嵇侍中血’이란 말은 충신의 피를 상징하게 되었다.¹³⁾

12) 『三國志』卷36, 「蜀書·張飛傳」.

13) 『晉書』卷89, 「列傳·嵇紹」.

(7) 爲張睢陽齒, 장휴양의 치아가 되기도 했고

지덕(至德) 2년(757년), 안록산(安祿山)이 죽은 뒤로 그의 아들 안경서(安慶緒)가 부장 윤자기(尹子琦)를 보내어 동라(同羅, 鐵勒人의 부락), 돌궐(突厥), 해(奚) 등 부족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양조종(楊朝宗)과 합류하니 모두 십 수만이나 되어 함께 휴양(睢陽: 지금의 河南城 商丘市)을 공격하였다. 장순(張巡)은 이때 허원(許遠)과 함께 소수의 병사로 휴양을 굳게 지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안의 수비군들은 대부분 기아로 인해 죽어나가고 있었다.

장순은 이런 상황 아래서도 성벽의 반란군 장수들에게 다가가서 충과 의로써 깨우침을 주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권하였다. 그는 매번 싸움을 독려할 때마다 크게 고향을 지르고 입을 짝 물다가 치아가 다 분쇄되었다. 마침내 성이 무너지고 그는 포로가 되었지만, 적을 거부하며 투항하지 않았다. 적장 윤자기가 그에게 물었다: “듣건데 그대는 매번 싸울 때마다 눈이 찢어지고, 치아는 씹어서 모두 부서졌다는데, 어찌하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聞君每戰, 脣裂嚼齒皆碎, 何至此耶?)” 장순이 대답하길, “나는 기세로 역적을 삼켜버리려고 하였으나, 단지 힘이 그렇게 해낼 수 없었을 따름이다.(吾欲氣吞逆賊, 但力不遂耳!)”고 하였다. 적장 윤자기가 큰 칼로 그의 입을 발라내어 치아를 보니 남아 있는 것이 겨우 3개에 불과하였다고 한다.¹⁴⁾

(8) 爲顏常山舌. 안상산의 혀가 되기도 했다.

안고경(顏杲卿)은 천보(天寶) 14년(755년) 상산태수를 대신하여 다스리고 있었다. 당시 안록산은 하북 하동채방사이고, 상산군은 바로 안록산의 관할 가운데 하나였다. 안고경은 안진경(顏真卿)의 종형이기도 하다. 천보 15년(756년), 사사명(史思明)이 상산군(常山郡)을 공격하였다. 안고경은 왕승업(王承業)에게 구원병을 요청하였지만 결과가 없었다. 마침내 정월 8일 성이 함락

14) 『新唐書』 卷192와 『舊唐書』 卷197(下)의 「張巡傳」.

되고, 안고경과 원리겸(袁履謙)은 반군에 포로로 잡히어 낙양으로 보내졌다.

안록산은 안고경을 보자 그 자리에서 그를 질책하며 말하였다: “너는 이전에 내가 범양호조에서 관관이 되도록 상주하였으며 이에 광록, 태상의 2승에 임용되어서 상산태수를 대리하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무슨 어긋남이 있었기에 나를 배반하였는가?” 안고경이 노한 눈으로 노려보면서 대답하였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당조의 대신으로서 영원히 충의를 지킬 것이다. 설사 네가 나를 관서의 관리로 주청하였다 하더라도 설마 내가 너를 따라서 반역을 해야만 한단 말인가? 하물며 너는 본래 영주(營州)의 일개 양을 치던 갈족(羯族) 노예로서 황제의 사랑을 흠쳐서 비로소 오늘이 있게 된 것인데 천자께서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하여 마침내 조정에 반란을 하였는가?” 안록산이 매우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명하여 천진교(天津橋) 다리기둥에 묶고 사지를 분해하여 그의 살을 먹도록 하였다. 안고경이 꾸짖길 끝이 없으니 반적들이 갈고리로 그의 혀를 자르며 말하길, “너가 아직도 욱할 수 있는지 좀 보자(復能罵否?)”고 하였다. 안고경이 꾸짖다가 마침내 해를 당하였으니, 그때 나이가 65세이었다.¹⁵⁾

(9) 或爲遼東帽, 혹은 요동의 모자가 되었는데

(10) 清操厲冰雪. 그 맑은 지조가 빙설보다 매서웠고,

관녕은 동한 말엽에 정치가 혼란하자 난리를 피하여 요동(지금의 遼寧省 遼陽市)으로 갔다. 그는 조정의 수차례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검은 모자를 쓰고 힘써 경작하였다. 그는 재야의 명사로서 안빈락도를 즐기면서 강학하였다. 조조가 사공(司空)에 임용된 이후에 관녕을 불렀지만, 요동태수 공손강(公孫康)이 그 조서를 단절시키고 관녕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중원 지역이 점점 안정된 뒤로 요동으로 도망온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단지 관녕만이 여유작작하게 지내니, 마치 요동에서 일생을 마칠 듯하였다. 당시 공손강은 대외적으로

15) 『新唐書』卷192와 『舊唐書』卷187(下)의 「顏杲卿傳」.

는 조정의 장군과 태수로 불렸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확실히 왕으로 칭할 마음이 있어서, 겸손하게 예로써 관녕에게 관직을 주어 그로 하여금 자신을 보좌하고 돕도록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끝내 그에게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할 정도였으니, 그는 바로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¹⁶⁾

이 이야기 속의 화흠은 나중에 조위(曹魏)의 사도가 되어 그 위치가 신하 중에 최고가 되고 청사의 명성도 뛰어나다. 앉은 자리를 칼로 베어버리고 다니는 동석 하지 않은 관녕은 일생동안 포의로 지내다가 한 나라를 떠났고, 위 나라에서 여러 차례 불렸지만 단지 시골에서 책을 가르치고 예를 말하고 민속을 교화하여 삼국시기에 가장 유명한 명사가 되었다.¹⁷⁾

(11) 或爲出師表, 혹은 출사표가 되기도 하였으니,

(12) 鬼神泣壯烈. 귀신도 그 장렬함에 흐느꼈다.

장무(章武) 3년(223년) 봄, 유비가 영안(永安)에서 병이 심하였다. 성도에 있는 제갈량을 불러 뒷일을 부탁하며 그에게 말씀하시길, “그대의 재주는 조비의 10배이라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키고, 종당에는 큰일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후계자 유선(劉禪)이 보좌할만하면 보좌하되, 만약 그가 재주가 없으면 그대가 스스로 나라를 취해도 된다.”고 하였다. 이제 제갈량이 울면서 말하였다: “신은 감히 보좌하는 힘을 다하고, 충정의 절개를 다하여서 죽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유비가 또 조서를 전하며 유선에게 칙령을 내리길, “너는 승상과 함께 일을 하되, 그를 섬기길 아버지처럼 하여라!”고 하였다. 유선

16) 『三國志』卷11, 「魏書·管寧傳」.

17) 유의경(劉義慶)의 『世說新語·德行』에도 「管寧割席」이라는 유명한 전고가 전한다. 관녕과 화흠(華歆)이 함께 생활하는데 두 사람이 김을 매다가 금을 한 덩어리 캐게 되었다. 관녕은 흙덩어리로 여기고 화흠은 한 쪽 구석으로 던져버렸다. 두 사람이 독서하는데 길에서 높은 관직의 수레에서 말이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오자, 화흠이 뛰어나가 살펴보았다. 이에 관녕은 화흠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친구가 아니다.”고 하면서 칼로 앉은 자리를 잘라서 두 사람의 자리가 분리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管寧割席’으로 도가 다른 친구와 헤어짐을 의미한다.

이 황제의 지위를 계승하고, 제갈량을 무향후(武鄉侯)에 봉하고, 다음해 다시 익주목(益州牧)에 임명하니, 정사에 크고 작은 일 따로 없이 모두 제갈량에게서 결정되었다.

제갈량은 장무 3년 가을 남쪽을 모두 평정하고, 5년에는 위(魏)를 정벌하기 위해 여러 군대를 이끌고 한중(漢中)에 머물다가 출사하기 전에 촉한(蜀漢)의 후주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려서 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결의를 표한다. 그는 바로 이 글에서 “몸을 급혀 힘을 다하되, 죽음에 이른 뒤에 그만 두겠습니다(鞠躬盡力, 死而後已)”는 명언을 남긴다.¹⁸⁾

(13) 或爲渡江楫, 혹은 장강을 건너는 노가 되어,

(14) 慷慨吞胡羯. 강개함이 오랑캐도 삼킬듯했고

조적(祖逖)은 동진(東晉) 원제(元帝) 때의 분위장군(奮威將軍)으로서 중원을 회복하겠다고 맹세한 바가 있다. 조적이 북벌할 때에 북으로 장강을 건너면서 배가 물 가운데 이르러 그는 눈앞에 곧곧히 동으로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서 감개무량하였다. 나라가 조각나고 백성이 도탄에 빠진 상황을 생각하고서 어려운 처경과 군센 뜻을 펼치기 어려운 분노를 생각하고서 호기로운 기세가 구름을 찢을 듯 끓는 피가 용솨아 오를 듯 배의 노를 두드리면서 낭랑한 목소리로 맹세하였다: “조적이 중원을 깨끗이 청소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저 장강같이 되리라!(不能清中原而復濟者, 有如此江!)” 이 뜻은 “만약 중원을 평정하여 실지를 수복하지 못한다면, 자신은 바로 저 장강처럼 한번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의 말이 비분강개하여 듣는 이들이 모두 감동하였다고 한다. 후인들은 “강물 가운데서 노를 친다(中流擊楫)”는 말로서 뜻을 세우고 분발함을 매우 크게 도모함을 비유한다.¹⁹⁾

18) 『三國志』卷35, 「蜀書·諸葛亮傳」.

19) 『晉書』卷62, 「祖逖傳」.

- (15) 或爲擊賊笏, 혹은 도적을 치는 홀(笏)이 되어서,
 (16) 逆豎頭破裂. 반역자는 머리가 깨지기도 하였다.

당(唐) 덕종(德宗) 건중(建中) 4년(783년) 경원병변(涇原兵變)이 발생하여 주차(朱泚)가 장안을 점거하였다. 주차가 단수실(段秀實) 등과 칭제(稱帝) 문제를 상의하려고 하자, 단수실이 맹연히 일어나서 같이 있던 원휴(源休)의 상아홀을 빼앗아서 앞으로 나아가서 주차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크게 욕하며 말하였다. “미친놈의 반역자! 나는 너를 갈기갈기 잘라 죽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운데, 어찌 너를 따라서 반란을 하겠는가?” 그리고는 상아홀로써 주차를 치니 주차가 손을 들어서 막아서 상아홀은 단지 주차의 이마만 쳤을 뿐, 그의 피가 땅위로 흩뿌려졌다. 주차는 단수실과 서로 외치면서 격투를 하였는데, 그의 시종들은 일이 창졸간에 일어난지라 놀라서 어찌 해야 할지를 몰랐다. 유해빈은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혼란을 틈타서 도망 가버렸다. 이충신은 앞으로 나가서 주차를 도우니 주차는 포박하여서 몸을 빼내 도망할 수 있었다. 단수실은 일이 성공될 수 없음을 알고서 주차의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과 함께 반역하지 않겠는데, 왜 나를 죽이지 않는가!” 무리들이 다투어서 앞으로 나와 단수실을 죽이는데, 주차는 한 손으로는 피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리를 제지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죽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단수실은 역시 해를 당하였고, 향년 65세였다. 주차는 그를 위해 울기를 매우 슬퍼하면서, 3품관의 상례로 그를 장사 치렀다. 덕종은 봉천에서 단수실의 죽음을 들은 뒤에 당초 그를 임용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다.²⁰⁾

2) 수사기교

(1) 조구법(造句法)의 변화

20) 『新唐書』 卷153과 『舊唐書』 卷128의 「段秀實傳」.

문천상이 인물진고를 사용함에 있어서 눈에 두드러지게 활용한 수사기교로는 배비법(排比法)을 들 수 있다. 배비법이란 구조가 비슷한 구법을 활용하여서 연속되는 구절에서 동일한 범위와 동일한 성격의 의상을 표현해내는 것을 말한다.²¹⁾ 시인은 (11)~(14)구까지는 4개의 “在” 자를 연용하면서 일련의 배비구식(排比句式)을 형성하여서 문장의 기세가 매우 충일하게 하였다. 시에서 언급된 이들은 모두 “正氣”를 타고났기 때문에 비로소 장쾌한 행동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인은 이어지는 (15)~(19)구까지는 낭송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서 “爲嚴將軍頭” 등의 네 구처럼 “爲”字 배비구로 바꾸었다. 이후 (19)~(26)구까지는 다시 또 변화를 추구하여서 “或爲”로서 排比句를 만들었다. 이 부분은 한 구로서 한 사람을 묘사하던 데에서 두 구로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으니 시를 읽은 이로 하여금 앞 구절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장감을 풀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인은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배비구(排比句)를 통하여서 중국역사상 대표적인 충의지사(忠義之士) 12인의 장렬한 행동을 찬양하였다. 시인은 조구방식에서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주어서 시를 읽은 이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고 변화무쌍함을 느끼게 하였다.

(2) 입성운의 활용

21) 『孟子』의 「滕文公」에 “富貴不能淫，貧賤不能移，威武不能屈，此之謂大丈夫(부귀가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않고, 빈천이 절개를 옮기게 하지 않고, 위세가 지조를 굽힐 수 없는 것, 이것을 대장부라 일컫는다.)”라고 하였는데, 이 3구가 바로 배비법(排比法)에 의한 조구실례이다. “富貴不能淫”，“貧賤不能移”，“威武不能屈” 이 세 가지 이미지의 근원은 “大丈夫”이다. 이들 이미지는 의식의 변화에 따라 3개의 이미지로 분화되어 질서 있고 규율성 있게 연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黃慶萱 『修辭學』 469쪽 참고)

排比는 엄격한 의미에서 對偶와 구별된다. 陳望道는 『修辭學發範』에서는 對偶와 排比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1) 대우는 반드시 글자 수가 같아야 하지만 배비는 반드시 그렇지 않아도 된다. (2) 대우는 반드시 두 가지가 서로 짝이 되어야 하지만, 배비는 반드시 그렇지 않아도 된다. (3) 대우는 글자가 같고 뜻이 같은 것을 애써 피하지만, 배비는 오히려 글자가 같고 뜻이 같은 것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삼는다(對偶必須字數相同，排比不拘；對偶必須兩兩相對，排比也不拘；對偶力避字同意同，排比却以字同意同爲經常狀況.) (黃慶萱의 『修辭學』(三民書局，臺北，民國75年.) 470쪽.

이 시는 전체 시의 용운이 매우 변화가 많아서 시의(詩義)와 서로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운의 쓰임이 곁으로 나가고 넓게 끌어들이어서 호연정기의 큰 역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였다.

첫 단락의 운자(韻字)는 ‘形’, ‘星’, ‘冥’, ‘庭’, ‘靑’으로서 모두 하평성(下平聲) 열다섯째 ‘靑’ 운에 속하는 양성(陽聲) 운이다. 천지간 정기의 위력을 묘사하는 데에 적합한 용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단락은 앞에서 이미 기술했듯이 인물전고를 활용한 단락인데, 내용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앞부분 (11)~(26)의 운자는 ‘節’, ‘血’, ‘舌’, ‘雪’, ‘烈’, ‘裂’로서 측성(仄聲) 아홉째 ‘屑’ 운을 사용하였는데 ‘筆’(質韻)과 ‘羯’(月韻)은 통압(通押)된 글자이다.²²⁾ 뒷부분 (27)~(34)의 운자는 ‘存’, ‘論’, ‘尊’, ‘根’으로서 상평성 열세 번째 ‘元’ 운에 속한다. 입성은 특히 색음(塞音), 곧 폐쇄음으로서 운미가 ~p, ~t(~l), ~k의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그 발음은 ‘짧고 급박(短促)’하다. 그래서 일단 음을 드러내면 바로 그 음이 닫히는 모습이다.²³⁾ 이러한 입성 자가 시속에서 운각으로 사용되면, 시인의 격렬한 마음을 잘 드러낸다. 남송 항금 명장 악비(岳飛)의 「滿江紅」은 歇, ‘烈’, ‘月’, ‘切’ 등의 입성운을 사용하여 극도의 분노한 감정을 잘 드러내었고, 유종원의 「江雪」은 ‘絶’, ‘滅’, ‘雪’의 입성운을 사용하여 정치적 실패로 영주에 폄적된 시인의 외롭고 답답한 마음을 담아내었으며, 유영(柳永)의 「羽林鈴」은 ‘切’, ‘褐’, ‘發’, ‘噓’, ‘闊’ 등의 입성운으로 사랑하는 여인과의 이별에 대한 숨 막힐 듯한 슬픔을 표현해내고 있다. 문천상의 이 시 역시 측성 운이 지닌 짧고 급한 음으로서 장렬한 최후를 맞은 역사상 인물들의 급박한 최후를 잘 연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은 그리고 나서 다시 양성 ‘元’을 사용하여 정기가 천지간의 윤리도덕의 근간이 됨을 밝게 묘사하였다. 한 단락 속에서도 의미가 변하는 부분에서 측성과 입성을 번갈아 사용하여 낭송에 따라 의미의 변화

22) ‘屑’, ‘質’, ‘月’은 ‘眞部’에 속하는 인운(隣韻)으로서 통압이 가능하다. 『중국사음학(2권)』 84-88쪽.

23) 明·釋真空, 『篇韻貫珠集·玉鑰匙歌訣』: “入聲短促急收藏”. 陳元靚, 『事林廣記』: “平聲者哀而妄, 上聲者勸而學, 去聲者清而遠, 入聲者直而促.”

를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의 셋째 단락 (35)~(60)은 ‘力’, ‘北’, ‘得’, ‘黑’, ‘食’, ‘國’, ‘賊’, ‘極’, ‘色’의 입성 열세 번째 운인 ‘職’을 주(主)로 하고, 입성 열한 번째 ‘陌’ 운에 속하는 ‘瘠’, ‘易’, ‘白’, ‘昔’을 종(從)으로 하여 주종통운(主從通韻)의 형식을 취하였다. 감옥 속에 거처하면서 느끼는 답답함과 호연지기를 계승해야 하는 급박한 심정을 모두 입성 운자로 잘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시 전체로 보아서 이 시는 입성운을 중심으로 삼으면서도 일부 평성운을 교차시켜서 시를 낭송하는 이들이 이 시에 담긴 작가의 감정적 기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잘 압운하였다. 첫째 단락에서 둘째 단락으로 의미가 바뀌고, 다시 둘째 단락에서 셋째 단락으로 의미가 바뀔 때마다 환운을 하였다는 것은 시인이 용운의 변화를 통하여서 자신의 하고자 하는 말과 감정을 선명히 드러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3) 묘사의 일관성

이 시는 정기의 위력이 전체를 일관성 있게 관통하고 있다. 서문에서 작가는 「正氣歌」를 쓰게 된 원인과 정기의 위력을 자세히 다 쓰고 난 뒤 바로 이어지는 시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정기의 위력에 대해 영탄(詠歎)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서 서(序)와 시는 구조적으로는 서로 연속적이며, 기교적으로는 선후가 서로 호응하는 유기적 성분이 되고 있다.

그 아래에서 이어지는 둘째 단락은 첫째 단락의 마지막 두 구에서 “시운이 곤궁할 때에는 충절이 이내 드러나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신의 도록에 전해 진다.”고 한 말을 바로 이어받아서 앞서 묘사하였던 그러한 정기가 발현된 역대의 12공신을 뒤에서 일일이 묘사함으로써 서술의 흐름이 계속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정기의 위력에 대한 영탄은 마지막으로 셋째 단락이 끝나기 전에 다시 또 반복함으로써 문장의 기운이 서문에서부터 작품이 끝나기 직전까지 이어지도록 하였다. 시인은 “시운이 곤궁하면 충절이 이내 드러난다(時窮

節乃見)는 것을 시의 주제로 깔아 두고서 시의 서문에서부터 시가 끝날 때까지 정기의 위력을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다.

4. 맺는 말

문천상의 시가 창작은 덕우(德祐) 원년 조정을 위해 군대를 일으켰을 때를 경계로 대체로 전과 후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전기시작(前期詩作)은 약 300수 정도이고, 일부분 증답시(贈答詩)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성정(性情)을 표현한 좋은 시로서 매우 활기차고, 의미가 심오하다. 덕우년 이후, 국난을 맞아서 나라는 망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문천상은 포로의 신분으로 시로써 자신이 겪은 일을 기록하고, 시사(時事)를 기록하였는데, 그 시풍은 두보를 본받아 침울하고 처량하다. 마치 사람들이 두보의 “안사의 난(安史之亂)” 시기의 시가를 “시사(詩史)”와 같다고 여긴 것처럼, 문천상의 덕우 이후에 지어진 시가를 역시 시사로 여기고 있다. 『前後指南錄』, 『吟嘯集』 및 『集杜詩 200首』는 고도로 형상화된 언어로 창작한 송말의 사시(史詩)이었다, 이들 시는 모두 조정의 우매함과 무능력, 간신배의 권력독점(權力獨占)과 지사의 혈투 및 원나라 군대의 잔혹한 행위를 기술하여, 민족영웅으로서의 문천상이 천지를 놀라게 하고 귀신을 울리는 불요불굴(不撓不屈)의 투쟁사를 매우 자세하게 드러내었다. 문천상 후기의 시가는 문천상의 전체 작품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이며, 또한 남송말기 시단에서 보기 드문 진귀한 보물이다. 저명한 「金陵驛」, 「過零丁洋」 등과 함께 「正氣歌」는 일찍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대대로 전해지는 명작이며, 중국시가사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²⁴⁾

청대에는 그에 대한 평가가 특히 두드러진다. 청·강희제(康熙帝)는 그의 충군우국 정성이 우주를 채우고 금석을 뚫을 만하다고 평하기도 하였다.²⁵⁾

24) 鄧碧清 譯註 『文天祥詩文選譯』, 14-17쪽.

25) 清·康熙 『古文評論』 卷43. 熊禮滙·閔澤平, 『唐宋散文導讀』, 535쪽.

이 작품은 지극한 성정에서 나온 것으로 비분강개하고 처연한 마음이 담겼다. 짐은 매번 이 작품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몇 줄기 눈물을 흘리는데 그의 군주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진심은 진실로 우주를 채우고 금석을 뚫을 만하다.(斯篇出於至性, 慷慨淒惻。朕每於披讀之際, 不覺淚下數行, 其忠君懷國之誠, 洵足以彌宇宙而貫金石。)

이민족 몽고에 죽음으로 끝까지 저항하였던 한족의 영웅 문천상을 역시 이민족인 만주족의 황제가 크게 칭상할 정도로 그의 충절은 시대와 민족과 상관없이 빛나고 있다. 청·과공(過珙) 역시 동일한 평가를 하고 있다.²⁶⁾

송조의 명운이 장차 다하려 할 때 선생은 관직에서 물러나서 병사를 일으켰지만, 뒤에 원이 송을 멸망시키고 선생을 사로잡았다. 선생은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고 굳건히 산처럼 버티다가 마침내는 해를 입고서 죽으면서 진실로 그 정기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보면 한 마디 한 마디 말이 모두 마치 귀신의 눈물과 같아서 정말이지 금석을 뚫고 높은 하늘까지 닿기에 족하다.(宋祚將盡, 先生以致仕起兵, 後元滅宋, 執先生, 歷萬苦而不屈, 屹然如山, 卒遇害而死, 眞能全其正氣矣。試讀此歌, 言言若神鬼之淚, 誠足淚金石而薄雲天。)

전인들의 평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민족을 통합한 신중국에 와서는 그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사람도 있다. 혹자는 문천상이 시를 통해 열거한 역사인물들은 ‘민족영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역사나 인민에 대하여 무슨 커다란 공헌을 한 영웅인물인 것도 아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달리하기도 한다.

문천상의 사상기초는 기본적으로는 충군이라는 개념 위에 세워져 있다. 바로 이러한 봉건 충군사상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의 시야를 제한하였고, 그의 작품의 적극적인 내용이 제한을 받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의 적극적인 의의를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인민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사상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해야 한다. 그가 사로잡힌 이후 민족정기를 견지하고 위세에 굴하지 않고

26) 『重訂古文詳注全集』卷6. 熊禮滙·閔澤平, 『唐宋散文導讀』, 535쪽.

이익에 유혹되지 않고 마침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여 숭고한 민족절개를 지키고 조국을 위하여 정기를 지킨 것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천상의 애국사상은 필경은 무산계급의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사상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바로 문천상이 봉건층군사상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이 시 가운데는 자연히 유가적 가르침과 봉건 윤리관념을 담고 있다. 이를 테면 “삼강은 진실로 목숨이요, 도의는 그의 뿌리가 된다(三綱實繫命, 道義爲之根)”같은 말은 취할 바가 못 된다.²⁷⁾

한족 이외에 55개 소수민족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역사상 특정 한 민족의 영웅도 칭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긴 하다. 그러나 신중국 속에서도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여전히 유효하다. 등벽청(鄧碧淸)은 ‘그때의 몽고귀족 통치 집단과 근면하고 용감한 지금의 몽고인민과는 전혀 다르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그에 충절에 대한 칭상을 아끼지 않고 있다.²⁸⁾

“충성스럽고 의로운 마음을 말로 묘사할 수는 없지만, 인간 세상에 좋은 본보기를 남겨주려 하셨네!”²⁹⁾ 문천상은 그의 47세의 찬란하게 빛나는 삶의 역정으로써, 사람들에게 그의 충성은 악비와 같은 어리석은 충성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과 국민에 대한 굳고 굳은 충성임을 알려주고 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몽고족과의 민족 단결을 지킨다는 구실로 민족영웅이라는 이 칭호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역사허무주의의 관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힘들게 한다. 물어보겠는데, 역사적으로 원나라 몽고족의 귀족 통치집단이 어찌 오늘날의 근면하고 용감한 이 광대한 몽고족 인민들을 대표할 수 있겠는가? (“忠肝義膽不可狀, 要與人間留好樣!” 文天祥以他四十七歲光輝的生命歷程, 告訴人們, 他的忠, 不是岳武穆式的愚忠, 而是對祖國民族和人民的耿耿忠誠. 今天, 有人借口維護和蒙古族人民的民族團結, 反對諸民族英雄這一稱號, 這種歷史虛無主義的觀點是令人難以接受的. 試問: 歷史上的元蒙貴族統治集團, 怎能代表今天勤勞勇敢的廣大蒙古族人民?)

27) 聊城師範學院 中文系, 『大學語文 文章賞析』(中), 161-162쪽.

28) 鄧碧淸 譯註 『文天祥詩文選譯』, 13-14쪽.

29) 『文天祥全集』 附錄(525쪽), 汪水雲 「浮邱道人招魂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른바 역사허무주의에 빠지지만 않는다 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의 충절은 ‘금석을 뚫고 하늘까지 닿기에 족하다.’ 고 평가받을 만하다.

1282년 봄 문천상은 마지막 형장을 준비하면서 서언이 있는 마지막 절필 사를 허리띠에 써 둔다. 후빌라이는 그 사이도 여러 차례 그의 마음을 회유하였으나 그는 뜻을 굽히지 않는다. 남송이 비록 멸망은 하였지만 항원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해에 왕저(王著)와 고화상(高和尙)이 대도에서 승상 아허마(阿合馬)를 살해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 일이 문천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난다. 원의 조정에서는 이제 그를 처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후빌라이는 12월 8일 마지막으로 그를 한 번 더 회유하기 위해 그를 궁으로 불렀다. 문천상은 길게 읊만하고 절은 하지는 않았다. 좌우에서 그를 강제로 꿰어앉게 하였는데, 철추로 그의 무릎을 치기도 하였다. 마음만 바꾸면 원의 조정에서 승상의 벼슬에 해당하는 직위를 주겠다는 말에, 문천상은 “나는 송조에서 세 황제에게 은혜를 입었다. 장원출신 재상이라 불리는 자가 이제 조씨가 아닌 다른 성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원컨대 한 번의 죽음을 허락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9일 후빌라이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그를 처형하도록 허락한다. 형장인 뿔나무 시장으로 가는 길에도 그의 얼굴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형장에 도착하자 남쪽을 향하여 재배한 뒤에 마지막으로 “신이 나라에 보답하는 것도 여기 까지입니다(臣報國至此矣)”고 말하자 형이 집행되었다. 향년 47세이었다.

參考書目

- 『左傳』
『史記』
『漢書』
『三國志』
『晉書』
『新唐書』
『舊唐書』
『文文山全集』, 香港: 廣智書局, 1976.
『文天祥全集』, 北京: 北京市中國書店, 1985.
陳元靚 撰, 『事林廣記』, 江蘇: 江蘇人民出版社, 2011.
『宋詩鑑賞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6.
許總, 『宋詩史』, 重慶: 重慶出版社, 1990.
廖超慧, 『大學語文』, 武漢: 華中科技大學出版社, 2008.
李春青·桑思奮, 『詩賦詞曲聯精鑒辭典』,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1.
霍松林, 『宋詩鑒賞舉隅』,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2011.
『大學語文選講(二)』, 華東師範大學出版社編輯部,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2.
章培恒·王國安, 『大學古詩文辭典』, 北京: 漢語大詞典出版社, 2001.
熊禮滙·閔澤平, 『唐宋散文導讀』, 武漢: 長江文藝出版社, 2005.
『大學語文』文章賞析(中), 聊城師範學院 中文系, 聊城: 聊城師範學院, 2000.
夏延章, 『文天祥詩文賞析集』, 成都: 巴蜀書社, 1994.
黃慶萱, 『修辭學』, 三民書局, 臺北: 民國75年.
鄧碧清 譯註, 『文天祥詩文選譯』, 成都: 巴蜀書社, 1990.
朱明玥, 「南宋遺民詩人詩作研究」,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年4月.
周幼麗, 「文天祥詩歌用韻研究」, 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年5月.

- 陳清泉, 「文天祥評價的幾個問題」, 北京師院學報, 1980년3期.
張玉奇, 「文天祥詩歌的典型形象」, 上饒師專學報, 1983年3期.
夏延章, 「文天祥年譜」, 吉安師專學報, 第16卷 第1期, 1995年3月.
이종진 외, 『중국시와 시인』, 서울: 亦樂, 2004.
왕력 지음 송용준 옮김, 『중국시율학』, 서울: 소명출판, 2007.
오태석·이치수, 『宋詩史』, 서울: 亦樂, 2004.

Abstract

A Study on the literary Quotation of Wen Tianxiang's 'Zheng qi ge' Poem

Hwang, Yeonghi · Kwon, Hojong

The ruler of Yuan(元) dynasty promised Wen Tianxiang(文天祥) high government positions, sometimes seducing him with profit, and sometimes persecuting him with duress. But he did not give in, swearing death. So he was detained in prison for three years. On December 9, 1283, he died proudly with a strong heart. The poem 「Zheng qi ge(正氣歌)」 was written in prison a year before his death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oem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agraphs, depending on its content. "天地有正氣" to "一一垂丹青" is the first paragraph, "在齊太史簡" to "道義爲之根" is the second paragraph, and "嗟余邁陽九" to "古道照顏色" is the last third paragraph.

In the first paragraph the poet preaches the power of 'the Spirit, Zheng qi(正氣)', saying "It has a great power to create the sun and stars in the sky and rivers and mountains in the lower part of the world, and in a peaceful times of the human world, it makes the palace happy." "In times of trouble, loyalty is revealed (時窮節乃見.)" runs through the whole theme of the poem. The second paragraph is largely divided into two parts. "在齊太史簡" refers to the exemplary loyalty of 12 historical figures, and "是氣所磅礴" to "道義爲之根" refers to the fact that all their actions are from the manifestations of the Spirit and the Spirit becomes the basis for maintaining heaven, earth and human beings. The third paragraph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sections. The first, "嗟予邁陽九" to "分作溝中瘠" describes the inhumane life at prison, and the second, "如此再寒暑" to "仰視浮雲白" depicts even in this miserable life the sombre place seems to be a haven under the influence of the Spirit. The third, "悠悠我心悲" to "古道照顏色," tells us that the poet aims to follow the formers who practiced this Spirit.

In order to unite 55 non-Han minorities, not a single national hero in

history could be considered to be an object of praise. But in New China, as far as Wen Tianxiang is concerned, positive assessments are still valid. Deng Biqing(鄧碧清) says "It'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Mongols ruling group of those days and the hardworking and brave Mongols of today." Unless we fall into what is called "historical futility", he deserves to be praised as "his loyalty to the nation and its people is enough to break through the steel and reach the sky."

Key words : Wen Tianxiang, Zheng qi ge, Meng gu, Yamen, Yang tai hou, Duan zong, Zhang Hongfan, Zhang Shijie

투 고 일 : 2020. 1. 10. / 심 사 일 : 2020. 1. 15. ~ 2020. 2. 15. / 게재확정일 : 2020. 2. 20.